불교인재원 무료 강좌 마련

7월 29일부터 10주간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7월 29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서 '어려운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 제1기 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종교는 무엇이며 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부처님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기 △불교 가르침 이해하고 실천하기 △업과 윤회, 공과 선 이해하기 등 불교입문자들을 위한 주제로 열린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을 비롯해 박윤흔 불교인재원 고문,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김응철 불교인재원장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착순 45명 모집하며, 청소년과 청년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한편 불교인재원은 이와 함께 '생활참선 입문과정 제17기 강좌'를 8월 11일부터 11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서 진행한다. 증명법사는 고우 스님이 맡으며,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이 강의한다. 선착순 30명 모집에 회비는 15만원(만 30세 이하 무료). 1661-1108

윤호섭 기자

불교환경연대 새 출발 생태 순환사회 만든다

상임대표 법일 스님 등 취임

불교환경연대가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함께 생태적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 출발을 다짐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보고회 및 불교환경연대 임원 취임식'을 거행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4월 3일 영산강 하구둑서 100일 수행길을 시작하며, 회향 이후 본격적인 조직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불교환경연대의 3년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단체의 근간이 되는 비전은 '지속가능한 생태적 순환사회로의 전환'이다. 생명 · 순환 · 지속가능성 · 협동 · 수행을 5대 핵심가치로 정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숲과 생태 사찰위원회 △강과 습지 생명위원회 △기후 에너지 국제연대위원회 △녹색불교 교육연구 위원회 △홍보 출판 위원회 등 5개 분과별 사업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불자 선수들의 '금빛 승전보' 기대합니다

리우올림픽 D-10 불자 선수 누가 뛰나

24개 종목 200여 선수 출전
대회 목표 '금10-10위' 세워
4연속 10위권 내 성적 기대

4년마다 찾아오는 세계인의 축제,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8월 6~2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24개 종목 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금빛물결을 선사할 계획이다. 선수단은 1976 몬트리올올림픽(50명) 이후 최소 규모지만 대회 목표는 10-10(금메달 10개 이상 · 종합순위 10위권 내)으로 잡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 런던올림픽에서 종합 5위(금13 · 은8 · 동7)를 차지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이후 4회 연속 종합 10위권 내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역대 올림픽에서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만큼 이번 대회서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표적인 불자선수로는 배드민턴 이용대, 레슬링 김현우, 사격 진종오 · 김장미, 양궁 기보배 · 김우진 · 이승윤, 펜싱 김지연 · 신아람 등이 있다.

배드민턴 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 선수는 동료 유연성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노린다. 화끈한 경기력으로 최근 국제대회서 1위를 싹쓸이 하며 건재함을 과시한 터라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용대 선수는 옴자 목걸이를 6년째 착용할 정도로 불심이 깊다. 그는 지난 6일 올림픽 선전 기원법회서 "이제는 목걸이를 안 차면 불안할 정도로 소중한 물건이 됐다. 스님들의 좋은 말씀도 힐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올림픽서 레슬링 66kg급 금메달을 거머쥔 김현우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2012년 당시 부상투혼으로 금메달을 확정짓고, 한쪽 눈이 퉁퉁 부은 채 감독과 맞절을 올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이번 대회에는 체급을 올려 75kg급에 도전한다. 과거 "근육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한 그이기에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사격 간판 진종오 · 김장미 선수 등 불자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사격은 역대 최다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진종오 선수는 이번 대회 한국선수단 남자 주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베이징올림픽서 1개, 런던올림픽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3연속 금메달을 정조준한다. 불심 깊은 그의 어머니가 사찰서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모습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런던올림픽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하며 '신데렐라'라는 별칭을 얻은 김장미 선수는 2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명실상부 세계최강 한국양궁 에이스 기보배 선수는 선수단 결단식서 "라이벌은 내 자신"이라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그는 2010년 아시안게임 단체전과 런던올림픽 개인 · 단체전서 금메달을 따내며 금자탑을 쌓았다. 최근 대회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며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남자양궁을 대표하는 김우진 · 이승윤 선수 역시 각종 대회서 금메달을 휩쓸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런던올림픽서 금메달을 비롯해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새로운 효자종목으로 떠오른 펜싱 역시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나선다. 2012년 당시 막내급으로 금메달을 따낸 김지연 선수(사브르)는 이번에 맏언니 역할을 맡았다. 런던올림픽 때 없었던 사브르 단체전이 생겨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또한 런던올림픽서 명백한 오심으로 동메달을 놓쳐 아쉬움을 삼킨 신아람 선수(에페)도 메달 획득을 위해 담금질을 하고 있다.

펜싱종목 두 선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행복바라미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면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포츠스타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기계체조와 역도,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서 불자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청소년이여, Be the Buddha!"

조계종 포교원 · 은정 재단
9월 3일 제 8회 나란다축제
동국대서 개막… 軍서도 열려
미션 수행 · 우리말 독송 신설



청소년들의 신행활동을 증진시키고,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교리대회인 나란다축제가 올해는 재미를 더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나란다축제가 9월 3일과 4일, 28일 등 총 3일에 걸쳐 동국대를 비롯해 전국 군법당, 사관학교 등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Be the Buddha'.

올해는 기존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회향마당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외에 △미션을 수행하라 △우리말 독송대회가 새롭게 선보인다. '미션을 수행하라'는 동국대 교내에 설치된 미션 장소에서 팀원이 주어진 미션을 함께 수행하고, 불교교리 문제를 푸는 예능요소를 가미한 코너다. '우리말 독송대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우리말 예불문을 독송하는 것으로 신행활동 확산 일환으로 마련했다. 특히 기존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단독으로 준비하던 전통문화 체험마당은 사찰 및 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메인행사가 펼쳐지는 3일에는 오전 11시 불교교리 경시대회와 범종을 울려라 일반부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 오후에는 신규 코너 등이 진행되며, 회향마당 이후 동대문 특설무대로 이동해 댄스경연대회를 실시한다. 4일은 전국 군법당서 군장병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불교교리 경시대회가 열린다. 축제서 지급되는 총 장학금은 8700여만원. 접수는 8월 26일까지 홈페이지(eunjung.or.kr/quiz)서 가능하다.

이외에도 청소년 국악인재 육성을 위한 '제2회 은정 청소년 전통예술 경연대회'도 3일 나란다축제와 함께 열린다. 성악 · 기악 · 무용 · 타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장학금은 1천여만원. 시상은 당일 현장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접수는 8월 19일까지. (02)515-9351

윤호섭 기자

불성 · 여래장 사상은 어떻게 변용됐나

금강대 불문연, 8월 6~7일 국제 학술세미나

"만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불성 · 여래장 사상은 인도에서 기원돼 동아시아 불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같은 불성 · 여래장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수용 · 변용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은 오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성 · 여래장 사상의 형성, 수용과 변용'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첫날에는 △시모다 마시히로 도쿄대 교수의 '인도불교사에서 여래장 이론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 △야마베 노부요시 와세다대 교수의 '다시 한 번 기체설(基體說)에 관하여' △안성두 서울대 교수의 '〈보성론〉과 몇몇 유가행파 문헌들에 공통된 세 비유' △카노 카즈오 고야산대 교수가 '인도에서 〈보성론〉의 수용'을 △쿠라나시 켄이치 타이쇼대 교수가 '금강승에서 여래장 사상'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로버트 H. 샤프 버클리대 교수가 '불성과 초기 선(禪)' △차상엽 금강대 교수가 '중국불교와 티베트 불교 속 여래장의 세 가지 의미' △도르지 왕축 함부르크대 교수의 '롱소빠의 여래장 사상' △클라우즈 디터 마테즈 비엔나대 교수의 '제8대 까르마파 미꾀도르제의 여래장과 객진번뇌의 관계에 대하여' △더글라스 덕월스 템플대 교수의 '티베트에서 여래장의 기반' 등을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철 금강대 불문연 소장은 "여래장 사상은 인도에서 기원됐지만 인도보다는 티베트와 동아시아 불교사상에 미친 영향이 더 심대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여래장 사상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하고, 수용 · 변용사를 문헌학 · 지역학적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